| LS증권 Global Market Daily | 미국증시 코멘트 | 2026. 05. 04 |

불확실성 압도한 기업 이익, 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 경신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정점 지난 실적시즌, 기술주가 지속 주도하는 시장

- 미 증시는 DOW -0.31%, S&P500 +0.29%, NASDAQ +0.89% 혼조, S&P500 및 NASDAQ 사상최고치 기록. 업종별 기술주 강세, 에너지·산업재 약세
- 강력한 기업 실적: 5/1 까지 S&P500 기업 내 약 63%가 실적 발표 완료, 이익성장률은 YoY+27.1%로 4Q21 이후 최고치 기록. 보고기업의 84%가 EPS 예상치 상회, 81%가 매출 예상치 상회. M7(엔비디아 제외 6 개기업 실적발표 완료) 합산 이익성장률 +61%로 예상치 대폭 상회하며 기술주 및 AI 센티먼트에 긍정적 효과

미-이란 협상 난항 여전, 주독미군 감축으로 불거지는 안보구조 변화 조짐

- 이란은 14 개 수정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며,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및 이스라엘·레바논 종전을 요구. '선 분쟁종결, 후 핵협상' 제안을 미국이 거절하자 내건 조치이며, 30 일 내 모든 협상 완료 후 종전을 제안.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정안을 검토하겠다 밝히면서도, 이란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협상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국제유가 하락 WTI $101.9(-3.0%). 주말중 UAE 탈퇴 후 첫 OPEC+ 회의에서 6 월 원유생산량 +18.8bpd 증산 계획 발표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5 천명↑감축 검토 예고, 이탈리아 및 스페인 또한 감축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며 추후 나토 동맹국 및 유럽 안보구조 영향 확대 가능성. 미 본토 국방예산 증액과 대비되는 해외주둔비용의 효율화 기조이자 이란전쟁 비협조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

ISM 제조업 지표는 연준 금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4 월 ISM 제조업 PMI 52.7 전월과 동일, 컨센은 하회. 올해 이후 확장국면을 유지한 한편, 세부지표상 생산지수 및 신규주문지수는 확장국면을 유지했으나, 고용지수 및 재고지수 위축 지속, 가격지수 급등(73.8→84.6), 공급자인도지수 상승(58.9→60.6) 등은 향후 경기 우려를 자극하는 부분
- 지난주 FOMC 에 이어 제조업 지표까지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금리 신중론을 자극, CME FedWatch 는 올해 12 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을 지난주 대비 높이며 우세(61.3→77.7%)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APL	애플	+3.3%	실적발표. 매출 및 EPS 컨센 상회. 차기 분기 매출 성장 가이던스(14~17%)가 시장 컨센(9.5%) 대폭 상회. 다만 예상보다 부진한 아이폰 매출 발표, 아이폰 매출은 최근 3개 분기 중 2회 컨센 하회.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비용 상승 리스크에도 불구, 애플의 마진 관리 능력을 신뢰한다 분석. 연간 EPS 전망치 $8.63→$8.89 상향 조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SNDK	샌디스크	+8.3%	실적발표. 매출 및 EPS 컨센 대폭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데이터센터 매출 폭증(+233%QoQ)이 핵심 동인. 차기 분기 가이던스 컨센 상회하는 공격적 수치 제시. CFO는 $6 B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
AMGN	암젠	-4.8%	실적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고지혈증 치료제 레파타(+33.5%YoY) 등 주력 성장 품목의 견조한 수요 확인. 다만 기존 주력 제품군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또한 보수적인 연간 가이던스 상향 폭에 주가 약세
XOM	엑슨모빌	-1.0%	실적발표. 유가 급등에도 순이익 전년대비 감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중동발 공급 차질과 유가 변동성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 가이아나 신규 유전 및 퍼미안 분지의 생산 호조로 펀더멘털 견조, 구조적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방어 주력
CVX	쉐브론	-1.4%	실적발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업스트림(시추·생산) 부문은 호조, 파생상품 관련 회계적 타이밍 이슈에 전체 순이익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주가 약세. CFO는 변동성 장세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타이밍 효과를 제외하면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언급. 1분기에 발생한 약 $1B 규모 평가손실 포지션이 2분기에는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라 강조. 전체 생산량은 헤스(Hess) 인수 효과 및 퍼미안 분지 성장에 힘입어 +15%YoY 증가
EL	에스티로더	+3.4%	실적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및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 턴어라운드 전략의 일환으로 추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주가 강세